

“삶에 변화 주고 싶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 시리즈 첫 무대, 아나운서 이상협 초청 ‘당신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나요?’ 주제 시낭송·연주 등 다채로운 시간

다섯 번의 ‘첫인사’가 이어졌다. 이날 공연의 출연진은 아나운서 이상협 한 명뿐이었으나 시인, 음악가, 미디어 아티스트 등 다양한 예인의 면모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갖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는 다빈치와 같이 여러 예술 장르에 소양 있는 르네상스인을 떠올리게 했다. 이 씨는 단출한 라인업과 미니멀한 세션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풍부하게 채워 나갔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당신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나요?’가 펼쳐졌다.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시리즈 일환으로 진행된 첫 무대였으며, 이날 공연에는 콘서트 가이드로 아나운서 이상협이 자리했다.

지난해와 같이 중·장년 여성 관객들이 객석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중에는 KBS클래식 FM ‘당신과 밤과 음악’ 애청자들이 많았으며 시니어 관객도 눈에 띄었다. 오전에 진행되는 ‘마티네 콘서트’가 입소문을 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다.

이상협은 방송과 시, 음악 등을 중립무진해 왔다. 고려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KBS 아나운서로 일하며 ‘추적 60분’, ‘역사저널, 그날’ 등에 목소리를 올렸다.

그는 1997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경력을 토대로 2010년 앨범 ‘봄, 밤’ 등을 발매한 음악가(활동명 에고트립)이기도 하다. 2012년에는 현대문학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을 출간했으며 미

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등, 팔방미인형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생일날 관객들 앞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연 이 씨는 “오늘 공연은 ‘이상협’이라는 바다를 탐색하며, 동시에 관객들의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나’를 갖고 살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나 자신’이며, 그 여집합이 세계일 뿐”이라 덧붙였다.

이 씨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헤라클레이토스의 경구 ‘만물은 유전하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를 예로 들었다. 70여 개 이름을 지닌 페르난도 페소아, 미술부터 건축까지 다방면에 능통했던 다빈치에 대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씨는 “현대사회에서 삶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며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기상 시간을 바꾸는 일, 경음악을 들어보거나 평소 가지 않던 레바논 식당에 방문해 보는 등 작게나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협.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예술의전당에서 ‘11시 음악산책’이 펼쳐졌다. 첫 콘서트가이드로 아나운서 이상협이 출연해 ‘당신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나요?’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그의 다양한 예술가적 면모가 주를 이루는 공연이었기에, 이 씨에 대한 긴 소개는 불가피했을 터다. 다만 오롯이 ‘휴먼파워’에 기대는 공연은 관객 대부분이 출연진의 약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낭송, 연주 분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았다.

다소 키치한 슬라이드 구성과 정적인 전반부 연출 등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이 씨의 예술가로서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공연 장면이었다.

그는 뒤편에 놓았던 주황색 머플러를 두르며 “안녕하세요 시인 이상협입니다”라고 자신을 다시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자신의 시 ‘정동산책’

과 ‘가장 가까운 바다’를 낭독했다. 한 편은 시 원문을 화면에 송출했고, 다른 한 편은 목소리로만 들려줬다.

한양대 음대를 졸업하고 한예종에 재학 중인 김남훈의 바순 연주와 미국 버클리음대를 졸업한 재즈피아니스트 KTG 박상현의 하모니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테마 송인 시그널 송 빌 더블라스의 ‘Hymn’도 울려 퍼졌다.

이 씨는 기타를 꺼내 들더니 즉석에서 ‘기타리스트’로 변신하기도 했다. EgoTrip으로 활동하던 당시 발표한 자신의 노래 ‘사막밭’을 연주한 뒤 “어렵다”는 말로 끝맺었다.

지난해 공연이 콘서트 가이드(김이곤)의 입담과 한 분야에 대한 해박함으로 관객을 ‘압도’했다면, 올해는 이상협의 카멜레온 매력과 ‘개인기’를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듯했다.

그가 들려준 철학자 세네카의 명문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어려워져 많은 것들을 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기에 어려운 것이다”는 말은 도전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했다.

한편 11시 음악산책에는 오는 24일 건축가 김종진, 10월 29일 사진작가 안용철, 11월 26일 기타리스트·영화음악가 이병우가 출연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실체

광주비엔날레 30주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파빌리온 전시

7일부터 동곡미술관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다.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와 만남이 있음에도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영국계 ‘외로움’을 질병으로까지 규정할 정도로 ‘외로움’은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인식된다. 상이한 문화를 지닌 각국의 나라에서 외로움이 어떻게 발현되고 사회 구조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전시가 오는 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동곡미술관은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과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파빌리온 전시에서 ‘외로움’의 감정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비엔날레 기간을 포함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외로움의 지형학’.(개막식은 오는 7일 오후 6시 30분, 판소리 퍼포먼스, 전시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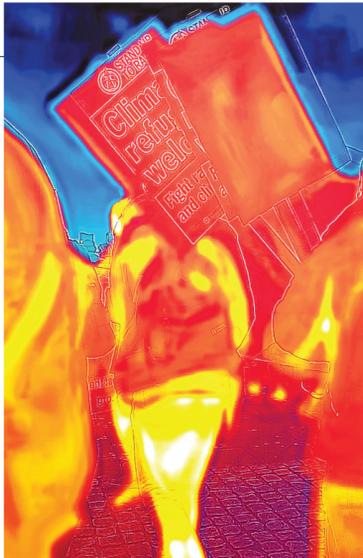
가 예정돼 있다.) 이탈리아문화원과 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영현) 협업으로 지난해 파빌리온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실에서는 이탈리아 신진작가인 레베카 모치아의 작품을 만난다. 작가는 현대 사회의 외로움의 정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탐색을 해온 예술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객이 외로움을 체험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 점이 특징이다.

사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실체는 어떤 주의나 이념, 설명에 앞서 직관적으로 느끼기 마련이다. 작가는 작품 모티브를 2018년 영국에서 시작된 ‘외로움부’에서 착안했다. 현대 사회에서의 외로움과 연관된 심리적, 사회적 구조를 영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등과 연계해 탐구했다.

특히 서울예술대와 협력을 매개로 외로움에 대한 장소특정적 연구를 병행했다. 매체 활용 몰입형 설치 작품이 어떻게 외로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할지 기대되는 지점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old As You Are’. (동곡미술관 제공)

정소의 큐레이터는 “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근원과 다양한 양상 등을 조명하는 데 있다”며 “개인적 집단 등에 내재된 다양한 외로움의 실제 등을 사유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음세권 클래식

6~2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2기 역사문화시민대학 모습.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통일신라시대 현재의 동구 구도심일대에는 무진도독성이 존재했다.

임영진 마한연구원장의 논문 ‘통일신라 무진도독성의 위치와 규모’에 따르면 구도심 곳곳은 광주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특히 무진도독성은 광주읍성과 중복돼 구도심에 자리했을 것이라고 본다.

광주읍성을 모티브로 한 흥미로운 강좌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오형근)이 마련한 ‘음세권 클래식’(9월 6일~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그것.

이번 강좌는 제13기 역사문화시민대학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지난해 재단에서 발간한 ‘광주읍성 이야기’ 내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네 번의 강좌와 28일 대구 문화탐방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첫 강은 오는 6일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음세권 분야 파헤치기’를 주제로 문을 연다. 이어 ‘잃어버린 광주읍성을 찾아서’(13일,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 ‘낮보다 빛나는 음세권의 밤’(20일,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 ‘한시 속 읍세권 감성’(27일, 박명희 전남대 교수)이 펼쳐진다.

마지막 28일에는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과 함께 대구 일대 문화탐방을 진행한다. 대구형무소를 비롯해 달성공원, 청라언덕, 국제보상운동기념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오형근 이사장은 “역사문화시민대학은 광주 정신의 뿌리인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해 함께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이번 ‘음세권 클래식’은 제복만큼이나 흥미로운 강의들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베이스스 플룻 앙상블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낭만’

광주문화재단 ‘9월의 목요콘서트’ 5·12·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현악·플룻 앙상블,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융복합 공연을 만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이 ‘9월의 목요콘서트’를 오는 5일, 12일,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5일에는 ‘베이스스 플룻 앙상블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낭만’이라는 주제로 플룻 앙상블 무대를 볼 수 있다. ‘파리 올림파’를 테마로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포레의 솔로곡,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을 시작으로 베르토티의 작품을 들려준다. 이베르의 전주곡과 비제, 데메르스팡, 기욤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고다운, 김민정, 박지혜, 조효주 등이 플루트를 연주하며 피아노에 정지연.

선클라비어의 ‘사랑, 미술 그리고 음악’은 12일 진행된다. 미술과 음악에 깃든 비화를 만나는 자리이며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스크린 이미지와 피아노 연주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조선대 음악교육과 및 대학원생 동문으로 구성된



‘클로제앙상블’.

(광주문화재단 제공)

선클라비어는 2001년 창단 이래 다수 연주회로 지역인과 소통해 왔다. 문마리아, 조소미 등(피아노), 권효진(소프라노)이 출연, 기획 및 해설은 클래식큐레이터 전수아가 맡는다.

9월 공연의 대미는 26일 클로제앙상블의 ‘현악, 청춘의 조각을 담다’가 장식한다. 청춘 여정을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 현악 하모니로 풀어낸다. 전체 영·김혜린(바이올린), 이에린(비올라) 등의 연주

에 이노을의 해설을 곁들인다.

재단 빛고을시민문화회 송선아 담당은 “융복합 공연부터 현악, 플룻 앙상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나게 됐다”며 “클래식 큐레이터의 해설 등을 접목한 무대들은 클래식 입문자라도 부담 없이 즐기 좋은 것이다”라고 했다.

입장료 5000원, 수익금 전액 공연팀 전달.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제로 베이스 온라인 경매’ 작품 모집

신진 화가들은 아직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작품 가치를 쉽게 책정할 수 없다. 이들 작품 경매를 ‘0원’에서 시작해 구매자들이 직접 가격을 책정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주)서울옥션과 ‘제로 베이스 온라인 경매’에 참가할 작품을 오는 20일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에서 모집한다. 전남에서 출생 또는 거주 중이거나 전남 소재 초·중·고교 및 대학을 졸업한 미술 분야 작가라면 경력 무관 지원 가능.

제로베이스 옥션은 지난 4년간 총 296점 작품이 출품돼 모두 낙찰에 성공했으며 88회의 경매 끝에 1610만 원에 낙찰된 작품도 있다.

참여자 작품들은 서울옥션 강남센터와 화순하나

옥션에서 진행되는 ‘ART 061’에서 전시 기회도 부여받는다. 이외 서울옥션 채널 등에서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재단은 지역 화단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남도예술은행’ 사업을 추진, 미술 작품 3700여 점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제로베이스 경매와 함께 벵크아트페어, 상하아트페어 등에 참가할 화가를 선정해 지원 중이기도 하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목욕’ 자신만의 화업을 쌓아가고 있는 지역 작가를 발굴해 수도권 미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공모”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 유수의 작가들이 수도권 아트페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